

|| 성도의 교제 || 복음으로 삶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 (대하 4:10)

○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알림

1. 오늘 실만한물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2. 2026 년 표어: 복음으로 삶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 (역대상 4:10)

3. 2026 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잃은 양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실천사항 1: 잃은 양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실천사항 2: 잃은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4. 2025 년 헌금 영수증이 준비되었습니다.

5. 온타리오 한인 교회 협의회 가입절차가 비회원 교회 추가 요청으로 연기되었습니다.

6. 토요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7. 교우 소식: 오인레 권사님 한국 방문(2/19-5 월)

8. 역대상 17:20 (2026 년 2 월 성경 암송 구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9. 실만한 물가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Cheque Pay to: The Refreshing Church

E-Transfer: rwgchurch@outlook.com

○ 실만한물가교회 연락처

E-mail: rwgchurch@outlook.com

Homepage: rwgchurch.ca

Tel.: 647-989-2546

Address: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ON L5N 2A7

실만한 물가 교회 QR Code Scan

홈페이지



YouTube 채널



목요성경공부



카카오톡 채널



캐 한 예 수 교 장 로 회
실 만 한 물 가 교 회
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

주일 예배	오후 1:30	인도: 김윤규 목사
묵도 Choral Prelude		다함께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찬송 Hymn	9 장 (통 53)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62. 시편 143 편	다함께
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	365/366 장	다함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봉헌 및 기도 Offering & Prayer	216 장 (통 356)	다함께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역대하 (2 Chron) 7:14-16(OT 665)	인도자
설 교 Sermon		김윤규 목사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기도

A Prayer that opens the heart of God

*찬 송 Hymn	363 장 (479)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김윤규 목사

*는 일어섭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설교에서 함께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대하 6:13) 솔로몬이 일찍이 늦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요 너비가 다섯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대하 6:13) 솔로몬이 일찍이 늦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요 너비가 다섯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역대하 7:14(구약 p. 665)

역대하 7:15-16(구약 p. 665)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자의 네 가지 특징

첫째, 기도자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둘째, 기도자는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신뢰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셋째, 기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기도자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1.

2.

3.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 주변의 환경은 시시때때로 변화합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때로는 화려한 가을과 같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혹독한 겨울과 같이 눈보라(Snow squall)가 몰아치는 시간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보라로 시야가 가려진다고 할지라도 길은 잠시 눈에 덮여 있을 뿐,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길을 다시 찾고 올바르게 걸어가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을처럼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성경 말씀이 스스로 깨달아지고, 예배가 은혜롭고, 삶이 풍성해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겨울과 같은 혹독한 시간에는 시련과 시험이 겹쳐서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되고, 성경은 믿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예배가 공허하게 느껴지며 믿음에 관한 회의(懷疑)가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겨울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믿음의 길 위에서 겨울에는 봄의 싱그러움과, 여름의 푸르름, 그리고 가을의 화려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 덮인 풍경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hodos, way)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incarnation)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Ascension)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사건을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순례자의 길 위에서 혹독한 겨울이 다가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견디기 힘든 믿음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명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믿음의 환경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길이십니다.